



비올리스트 에르완 리샤는 오푸스 앙상블·  
에라트 앙상블·현대음악앙상블 소리·코리아  
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화음 챔버 오케스  
트라 멤버, 수원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 암보, 이제는 탄탄하고 효율적으로 ①

글 에르완 리샤 Erwan Richard  
번역 정지운

클래식 연주자에게는 암보한 상태에서 연주하는 것이 흔하고도 필수적인 일이다. 콩쿠르에서의 연주는 언제나 암보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고, 오케스트라 반주를 수반한 솔로곡이나 솔로 피아노곡들은 되물을 여지없이 외워서 연주하는 것이 관례가 된 듯하다. 기억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암보 자체는 짜증을 일으키는 절박한 연습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 암보는 왜?

어떤 연주자들은 암보해서 연주하는 것이 음악적으로 확신을 들게 할 수 없으며, 암보에만 근거한다면 무의미하고 헛된 연습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림에도 여전히 암보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연주하는지, 우리의 악기와 우리가 다루는 곡 그리고 청중과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하다. 암보를 잘하는 것은 '음악을 즐길 줄 아는' 연주에도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암보를 함으로써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같이 연주하는 이나 청중에게도 좀 더 소통이 가능한 자세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이상적으로, 외우려고 준비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최소한의 외우려는 의지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저절로 곡이 외워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 오히려 정반대로 어떤 곡의 경우에는 곡을 외우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곡이 복잡하거나 곡의 길이가 긴 경우, 곡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연습을 했는지, 해당 곡에 얼마나 친숙한지(예를 들어,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협주곡을 연주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곡보다 훨씬 낫듯이)에 따라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가 암보를 쉽게 혹은 염두에 두고 연습해야 하는지를 결정짓는다.

### 암보의 필요성

연습 초기부터 무대 위에서의 암보에 대한 어려움을 걱정하기 시작하면 스트레스는 말할 나위 없이 커지고 피할 수 없게 된다. 처음 악보를 접했을 때 자연스럽게 외워질 수 없겠다는 점을 자각했다면, 곧바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암보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좋다. 늦게 시작할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당신의 뇌는 불안에 떨며, 효율성은 떨어진 채로 더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하기 싫은 것부터 먼저 외우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스스로가 배우는 과정을 내면에서부터 연관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과정이 당신의 마음에서 충분히 감지되지 않는다면, 당신이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음악의 다른 양상이나 디테일을 찾아 스스로가 그 곡을 더 가

깝게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음악을 충분히 느끼고, 말 그대로 음악 안에서 말이다. 스스로의 연주를 바라보는 외부의 관찰자가 되지 말고!

###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외우기 위해서는 우리 뇌를 운동선수가 근육을 훈련하듯 단련해야 한다. 강도가 높은 작업, 릴렉스를 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시간 배정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운동선수의 훈련이 흡사하기 때문이다. 뇌 또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해내기 위해 산소, 진정할만한 시간, 인내심이 필요하다. 신체의 피로와 정신적으로 상쾌함이 고갈된 상태는 훈련 자체를 지치게 만든다. 피로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외우는 일도 더 이상 진전 할 수 없게 된다. 뇌에 더 이상 입력 할 수 없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외우는 과정에서 우리 뇌는 첫째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순서에 따라 정리해 이어 붙이는 일을 한다.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 뇌는 집중력을 발휘한 20분이 지난 뒤부터 효율성이 점점 떨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외우기 시작하는 처음 몇 분이 아주 중요하다. 뇌가 대부분의 정보를 얻는 시기를 거치고 난 뒤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뇌 안에서 그 정보들을 재배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한 곡을 몇 시간이고 붙들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혼란이 되는 일을 피해야 한다. 쉬는 시간이 없다면 뇌는 어떤 정보도 소화할 수 없고, 그 정보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배치될 수도 없다. 당신이 암보를 해둔 뇌의 신뢰감을 더 올리고 싶다면? 24시간 이내에 다시 완벽히 외웠다고 생각한 그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정보들이 뇌 깊숙이 자리 잡을 것이다. 이것이 엄청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두 겹의 외우기 작업인 것이다!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육체적이고, 지적인 기술이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음악가가 음악을 외우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는 필수 요소이다. 더불어 이를 위해서는 각각 훈련되어져 이후에는 하나의 강하고 견고한 기억력을 형성하는 두 가지 다른 형태의 암기법이 필요하다. 자세한 암보방법과 실제로 악보를 외울 때 적용하는 방법 등은 다음호에서 알아보자.

(다음호에 계속)